

현대차그룹사 노조 대표자 공동 성명서

잇따른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글로벌 TOP3의 부끄러운 민낯

현대차그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684만5천대를 판매하고, 일본 토요타그룹(1048만3천대), 독일 폭스바겐그룹(848만1천대)에 이은 세계 3위 판매를 기록했다. 거기에 발맞춰 2023년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급망의 ESG 경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의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비엔지스틸에서 지난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는 현대차그룹이 조금만 충실히 ESG 경영에 부합되는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예고된 참사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현대비엔지스틸이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보인 태도다.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진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결국 현대차그룹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준법과 공정,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현대차그룹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현대비엔지스틸에서만 발생한 일은 아니다.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7건에 달한다. 현대자동차에서 2건, 현대제철에서 2건, 현대비엔지스틸에서 3건이 발생했다. 추가로 금속노조 사업장은 아니지만 지난해 3월에 현대제철 예

산공장에서조차 25세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현대차그룹의 공급망 이곳저곳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글로벌 판매 TOP3 현대차그룹의 참담하고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현대차그룹은 ‘기업 자체의 ESG 경영뿐 아니라 공급망의 ESG 경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의무’ 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태도가 세계의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알려진다면, 투자자로부터는 ‘말만 번드르르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내는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고객들에게는 외면받는 자동차회사가 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스스로의 약속을 방기하는 태도가 이후 급변하는 자동차시장 속에서 심대한 ‘경영 리스크’ 로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일동은 현대차그룹이 현대비엔지스틸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모든 중대재해에 대하여 글로벌 TOP3에 걸맞은 조사와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둘째, 중대재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남겨진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과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2023년 8월 16일(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 일동

기아차지부 홍진성 지부장, 현대차지부 안현호 지부장,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오병섭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박종출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박영욱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비엔지스틸지회 조재승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정광식 지회장,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명호 지회장,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박준용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김만용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김중복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 백신일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지회 홍기태 지회장,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한치정 지회장,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이형도 지회장

참고)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발생 내역(2022년~2023년 현재)

NO	날짜	중대재해내용
1	22년3월2일	최○○, 57세 현대제철 당진 하이스코에서 도금POT 드로스 제거 작업 중 별정직 노동자 실족 사망
2	22년3월5일	김○○, 25세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철골 구조물에 깔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3	22년3월24일	김○○, 56세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장시간노동(주 72시간)으로 인한 자회사 노동자 과로사망
4	22년3월31일	양○○, 40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대형트럭 차량 캡과 프레임 사이 협착으로 조합원 사망
5	22년9월16일	주○○, 59세 현대비엔지스틸에서 6호차 크레인 점검완료 후 다른 크레인으로 이동중 6호차 크레인 운전자가 이동중인 재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크레인을 재해자 방향으로 이동시켜 재해자가 H빔과 크레인 사이 끼임, 협착으로 사망
6	22년10월4일	전○○, 65세 현대비엔지스틸에서 코일포장 작업중 코일 전도로 재해자 흉부와 다리타격. 병원으로 후송후 사망.
7	23년7월13일	유○○, 39세 현대자동차 카파엔진공장 크랭크 가공 라인에서 MCC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보전작업을 하기 위해, 설비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재를 들어내고 센서를 확인하려고 하던 중 작업머신이 가동되며 로더가 하강하여 머리끼임 협착사고로 사망.
8	23년7월18일	김○○, 57세 현대비엔지스틸 DG라인 코일 탈지작업 도중 가이드테이블 보수 중 시험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송시킨 후에 가이드 테이블 볼트 이탈로 가이드 테이블이 재해자쪽으로 전도되어 사망

※ 문의: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성희 010-3223-2612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자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